

## 뻬이뜨루스 판 마스트리흐트의 “De Optima Concionandi Methodo”에 대한 고찰 :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이정환  
(사천교회)

### [초록]

이 논문은 뼈이뜨루스 판 마스트리흐트의 주저 Theoretico-Practica Theologia에 실린 설교 소논문 “De Optima Concionandi Methodo”를 개괄한다. 이 조사에 기초하여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들을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DOCM과 에드워즈의 설교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밝혀낸다. 요약하면, DOCM은 표준적인 개혁주의 설교법이며, 에드워즈는 이 방법을 사용한 충실하고 표준적인 개혁주의 설교자였다. 기본적으로 에드워즈는 본문 주제-교리 논증-구별적 적용이라는 17세기 다수 개혁파 설교자들의 기초 양식을 사용한다. 더욱이 에드워즈는 자신의 설교에서 마스트리흐트의 DOCM에 지시된 주요 사항들을 반영한다. 특히, 에드워즈는 자신의 설교에서 회중의 영적 변화를 유발하기 위하여 구별적 적용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현대 설교자들 중 대다수는 통상적인 설교 중에 구별적 적용을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 설교 방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그런 방법을 다시 사용한다면 설교의 역사 속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는 진정한 부흥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키워드: 최상의 설교법, 이론-실천 신학, 마스트리흐트, 조나단 에드워즈, 구별적 적용

## I. 서론

베이뜨루스 판 마스트리흐트(Petrus van Mastricht, 1630-1706)는 화란 혈통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인데, 그의 주저인 *Theoretico-Practica Theologia*<sup>1</sup>를 통해서서 근래에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마스트리흐트의 교의서로서 1665년도에 라틴어로 초판이 발행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판본들이 간행되었다. 마스트리흐트는 독일 콜른(Cologne)에서 출생하여 화란 난민 공동체에 뿌리를 둔 교회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화란의 위트레흐트(Utrecht) 대학에서 히스벨뚜스 푸띠우스(Gisbertus Voetius, 1589-1676)<sup>2</sup>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후 유럽의 몇몇 대학을 순회하면서 공부하였다. 그는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 목회하였고, 뒤스부르크(Duisburg)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자신의 모교에서 푸띠우스의 후임으로 신학 교수로 봉직했다. 그의 저작들은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코튼 마더(Cotton Mather, 1663-1728) 등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sup>3</sup>

1 한글로 『이론-실천 신학』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하 *TPT*로 표기함.

2 푸띠우스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간략한 개관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황대우, “기스베르투스 푸띠우스의 생애와 신학”, 이상규 편, 『칼빈이후의 개혁신학자들』(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13), 157-81. Joel R. Beeke, *Gisbertus Voetius: Toward a Reformed Marriage of Knowledge and Piety* (Grand Rapids,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1999).

3 마스트리흐트의 생애와 신학 사상, 저작에 나타난 강조점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 다음을 참고하라. Todd M. Rester, “Introduction: Petrus van Mastricht”, in Petrus van Mastricht, *The Best Method of Preaching*, trans. T.M. Rester (Grand Rapids,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3), 1-19. 이 영어 번역본은 라틴어로부터 거칠게 번역한 것이라서 이해가 쉽지 않고, 약간의 오역도 있다.

“De Optima Concionandi Methodo”<sup>4</sup>는 마스트리흐트의 주저 *TPT*에 부록으로 실린 설교 소논문이다. 이것은 원래 단행본으로 1660년대에 라틴어로 출간되었는데, *TPT*에는 1681년판에 고스란히 실렸고 이후의 판본에도 앞부분이나 혹은 부록으로 뒷부분에 소개되었다.<sup>5</sup> 그리고 이 부록은 영문으로 번역되어 *The Best Method of Preaching*이라는 제목을 가진 별도의 소책자로 2013년도에 출간되었다. 조엘 비키(Joel R. Beeke, 1952- )는 이 책을 추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마스트리흐트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 신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간결하게 보여준다. 그는 설교의 배열, 설교의 서론, 본문 주해와 해설, 교리적 설교, 위안을 주기 위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 자기 점검을 위한 설교, 선행을 권면하는 설교, 설교에 있어서 주의사항, 긴 본문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설교의 전달에 대한 기초를 아우른다. 모든 설교자는 이 간결한 책을 읽어야 한다.”<sup>6</sup>

본고의 목적은 마스트리흐트가 쓴 DOCM을 소개하고,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에 있다. 에드워즈는 DOCM이 수록된 *TPT*에 대하여 극찬하면서 1746년 또는 1747년 1월 15일자 편지에서 조셉 벨라미(Joseph Bellamy, 1719-1790)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가 있다. “일반적인 신학, 교리의 실천 그리고 논쟁과 관련하여, 혹은 하나의 보편적인 신학 체계로써 마스트리흐트의 책을 택하라. 그의 책은 내 생각에 성경을 제외하고는 투레티누스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책보다도 훨씬 낫다.”<sup>7</sup> 여기에서 ‘마스트리흐트의 책’은

<sup>4</sup> ‘최상의 설교 방법에 관하여’라고 번역될 수 있다. 이하 DOCM으로 표기함.

<sup>5</sup> Rester, “Introduction: Petrus van Mastricht”, 17.

<sup>6</sup> Joel R. Beeke, *The Best Method of Preaching*, 표지 뒷면 추천사.

<sup>7</sup> Jonathan Edward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Letters and Personal Writings*, ed. George S. Claghor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8).

곧 *TPT*를 말하며, 그러므로 이러한 언급은 곧 에드워즈가 자신의 설교를 작성함에 있어서, *TPT*에 부록으로 실린 DOCM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을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설교와 관련된 전(全)분야를 다루기보다는, 주로 설교의 구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DOCM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조사함으로써 17세기의 탁월한 개혁파 설교자들의 설교 양식을 들여다 볼 것이다. 또한 동시대의 개혁주의 설교 문헌과의 비교 언급을 통해서, DOCM이 당대의 개혁주의 설교법으로서 표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sup>8</sup> 이와 함께 에드워즈의 설교 양식을 소개하고 마스트리흐트의 DOCM이 에드워즈의 설교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DOCM의 사용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본고를 정리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DOCM 요약 분석

DOCM의 라틴어 원문은 장의 구분은 없고, 총 18항의 일련의 요약 논술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sup>9</sup> 그런데, 이 책은 차상과 배치를 하나의 장(1-4항)으로, 정교화를 하나의 장(5-14항)으로, 전달 부분을 하나의 장(15-18항)으로 설정하여 세 개의 장으로 크게 나누어 보는 것이 적절하다.

XVI:217. 다음 자료에서 재인용. Peter van Mastricht, *A Treatise on Regeneration*, ed. Brandon Withrow (New Haven, CT: Soli Deo Gloria, 2002), vii.

<sup>8</sup> 이를 위해 윌리엄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1623)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1644)에서 비교되는 문장을 발췌하여 각주에 인용하였다.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서원모 역 (고양: 크리스챤라이제스트, 2007), 249-56. 토마스 래쉬만 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정장복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2), 51-56.

<sup>9</sup> Petrus van Mastricht, “De Optima Concionandi Methodo”, in *Theoretico-Practica Theologia* (Utrecht: W. van de Water, 1724), 1325-36. 구글링으로 PDF 파일 입수 가능함.

말하자면, 이들 세 장은 서론, 본론, 결론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론에 해당하는 정교화 부분은 5-14항까지인데, 이것은 다시 도입(5항), 본문 해석(6-7항), 교리 논증(8-10항), 적용(11-14항)의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제시하는 위의 구분법을 따라 세부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각 항별로 주된 내용을 요약하고, 첨언이 필요한 경우 필자의 논지를 간략하게 첨가할 것이다.

### (1) 촉상 및 배치 부분(1-4항)

1항은 이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스트리흐트는 이 책을 ‘최상의 방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이 방법 자체가 자신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i) 여러 지역의 개혁파 신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으며,<sup>10</sup> (ii) 그 자신이 이 설교법을 사용함으로써 유익성이 증명되었음에 두고 있다.<sup>11</sup> 또한 마스트리흐트는 서론에서 이 설교법이 추구하는 네 가지 이점을 제시한다. 그것은 (i) 설교자의 설교 준비에 유익하다. (ii) “이 설교법은 회중에게 유익하다. 회중이 이 설교법에 익숙해 질 경우, 설교의 형식을 잘 이해하고, 기억들을 잘 연결하고, 또한 가정에서 그 기억들을 떠올려 상기할 수 있다. 에임스가 신중하게 교훈한대로 이런 묵상이 없이는 설교의 모든 유익이 사라진다.”<sup>12</sup> (iii) 설교 내용의 배치에 유익한데, 설교할 내용

<sup>10</sup> 마스트리흐트는 여기에서 다섯 명의 신학자를 언급하였다.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1576-1633), 올리버 보울스(Oliver Bowles, 1574-1644), 길렐무스 살데누스(Guilelmus Saldenus, 1627-1694), 요하네스 호언베이크(Johannes Hoornbeeck, 1617-1666). Van Mastricht, DOCM, 1325. 에임스는 퍼킨스의 출중한 제자였다. 에임스와 그의 대표작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다음을 참고하라. 주도홍, “윌리엄 에임스”, 이상규 편,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자들』, 135-56.

<sup>11</sup> Van Mastricht, DOCM, 1325.

<sup>12</sup> Van Mastricht, DOCM, 1325: “... Auditoribus, qui huic methodo assuefacti, concionis filum commode assequi, memoriae committere, et cum suis domi repetere poterunt, absque quibus, monente prudenter Amesio, omnis perit usus concionis.” 여기서 마스트리흐트는 다음의 에임스의 글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1: “본문에 있는 진리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는 먼저 본문에 있는 진리를 설명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선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자는 교리들과 증명들과 관련된다. 후자는 적용 혹은 교리들로부터의 유익의 도출과 관련된다....”

들은 이 설교법에 따라 어디서든지 질서와 적절한 위치를 가진다. (iv) 적용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경건의 실천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마스트리흐트는 경건의 실천을 ‘설교의 영혼’이라고 본다.<sup>13</sup>

2항은 단순히 설교의 네 가지 부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착상, 배치, 정교화, 그리고 전달이다.

3항이 다루는 것은 착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설교의 주제와 본문을 선택하는 데 필요하다. 착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제 선택은 “회중의 교회를 위해 가장 적절한 (그리고 설교 전체를 북극성처럼 앞장서서 이끄는) 주제를 취할 것.”<sup>14</sup> 둘째, 본문의 선택은 너무 길거나 지나치게 짧지 않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 본문이 길지 않아야 할 이유는 선택된 본문을 해설하는 데에만 시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이며, 본문이 너무 짧을 경우 설교의 주제를 분명하고 풍성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15</sup>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마스트리흐트가 본문의 연속 강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설교 주제와 본문 선택에 있어서 회중의 상황에 적실한 것을 선택하도록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주문한다.

4항에서는 설교의 네 가지 부문들 중에서 ‘배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배치는 설교를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억에도 유리하도록 각 사안에 맞는 질서를 따라서 설교의 조직을 세우는 구상 또는 짜맞추기다”<sup>16</sup> 마스트리흐트가 설교의 배치에 있어서 주장하는 바는 첫째로 단순성과 질

이러한 요소들을 전도(顛倒)시키거나 혼동하는 자들은 청중들이 설교를 기억하기 어렵게 하고 자신들의 전덕에 집중하기 어렵게 한다. 그들의 청중들은 설교의 대지들을 기억할 수 없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를 반복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열매의 대부분이 상실될 것이다”(I. xxxv. 19, 20).

13 Van Maastricht, DOCM, 1325.

14 Van Maastricht, DOCM, 1326: “quod Ecclesia edificanda (quod universa concioni cynosuram praestet) convenientissimum existit.”

15 Van Maastricht, DOCM, 1326.

16 Van Maastricht, DOCM, 1326: “Dispositio est, qua inventa aut invenienda, in gratiam, tum intellectus, tum memoriae, in ordinem rei analogum rediguntur.”

서 그리고 명료함이다. 둘째는 이러한 배열이 매 설교마다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회중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다.<sup>17</sup> 설교의 단순하고 일관된 구조는 두말할 것 없이 회중들이 설교를 잘 따라오고 잘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스트리흐트가 배열로써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정교화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입 - 본문 해석 - 교리 논증 - 적용.

## (2) 정교화 부분(5-14항)

“정교화는 설교의 개별 구성 부분 및 구성 부분의 요소들을 하나씩 분할하는 작업이다.”<sup>18</sup> 그러므로 설교의 주제와 본문이 선택되면 설교의 기본적인 배치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설교의 전체 형태를 잡는 것이라면, 정교화는 설교의 본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교화 부분은 DOCM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써 5-14항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설교의 ‘개별 구성 부분’들의 주안점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 1) 도입(5항)

5항에서는 도입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다섯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첫째, 허풍을 떨면 의혹을 일으키고, 소심하면 주의를 환기시키지 못한다. 둘째, 도입에서 설득력이 없거나 너무 긴 내용을 다루면 회중은 처음부터 지루해 할 것이다. 셋째, 도입에서 본문이나 설교 주제와 동떨어지는 내용을 말하면 회중이 설교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없다. 넷째, 설교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을 도입에서 다루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 설교의 중요한 사안들은 도입 이후에 언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결과적으로 도입은 간결하고 설교의 전체 내용을 충실히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도입을 전할 때에는 적절한 감정이 필요한데, 회중은 감정

<sup>17</sup> Van Mastricht, DOCM, 1326.

<sup>18</sup> Van Mastricht, DOCM, 1326: “Elaboratio circa singulares concionis partes, partiumque ingredientia sigillatim distinetur,”

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준비시키고 주의를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입부에서 회중의 주의를 얻어낼 수 있을 정도의 감정적인 요소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감정은 논증에서 요구되는 것만큼 격렬해서는 안 되지만, 논증의 중요성, 긴요성, 유용성 안으로 회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sup>19</sup>

## 2) 본문 집약 및 해석(6-7항)

6항은 도입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써 본문을 집약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언급된다. 첫째, 본문을 살사이 조사하여 타당한 의미들을 발견해 낸다. 둘째, 수집된 의미에 대하여 적절한 명칭을 주어 구별해 놓는다. 그리고 위안, 권면, 훈계 등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sup>20</sup>

7항에서는 본문의 해석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분석과 주해로 구성된다. 첫째는 본문의 분석이다. 이것은 본문의 내용을 수집된 어구와 어휘에 따라 적당하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분할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마스트리흐트는 이 점에 대해서 주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본문을 최대한도로 세밀하게 분할해서 기억해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부과하는 것은 아닌가?”<sup>21</sup> 둘째는 본문의 주해인데, 주해를 통해서 난해한 것들, 본문에 대한 논쟁 요소들, 그리고 감추어진 행위들을 밝혀내고 풀어내야 한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본문에서 나오는 모호한 것들과 쟁점들은 쉽게 발견되는 것이어야 한다. (ii) 본문 그 자체로 충분히 이해되는 것을 애써서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간만 낭비하고 알기 쉬운 본문을 더 복잡하게 만들

<sup>19</sup> Van Mastricht, DOCM, 1327.

<sup>20</sup> Van Mastricht, DOCM, 1327.

<sup>21</sup> Van Mastricht, DOCM, 1327: “… ne minutissimis sectionibus nimium gravetur memoria.” 예배모범은 이렇게 권고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52: “… 처음부터 너무 많은 대지를 설정하여 듣는 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애매모호한 용어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뿐이다. (iii) 해설된 본문의 의미들은 부연설명으로 재차 하나로 묶어서 교리 논증이 적절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문 주제를 전할 때 필요한 감정은 격렬하거나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확고함이다. 확고함을 가지고 전할 때, 회중에게 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22</sup>

### 3) 교리 논증과 교의적 적용(8-10항)

본문을 주제한 이후에는 교리의 논증이 뒤따른다. 8항에서는 교리 논증에 있어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논하고 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교리는 분명하게 본문 안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본문의 견고한 논리적 유추로부터 나와야 한다.”<sup>23</sup> 그리고 이것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둘째, 교리의 논증은 병렬적인 성경 구절들로부터 지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지 구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끌어 모으지 않아야 한다. 두 세 개의 병렬 문구를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셋째,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무리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로부터 심각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sup>24</sup> 넷째, “교리 논증은 반대하려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분명하고, 적합하게 도안되어야 한다.”<sup>25</sup> 다섯째, 논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적용을 위한 시간을 훔치지 않아야 한다. 교리 부분을 증거함에 있어서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sup>22</sup> Van Mastricht, DOCM, 1327-8.

<sup>23</sup> Van Mastricht, DOCM, 1328: “Ut certo sit in textu, aut per invictam consequentiam inde producatur,” 예배모범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52: “… 진리는 본문 안에 또는 본문에 기초하거나 포함된 것이어야 하고,…”

<sup>24</sup> Van Mastricht, DOCM, 1328: “Ut tamen non vexentur textus, quasita nimia probationis evidentia.” 에임스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2: “많은 것을 사색하고 말했을지라도, 자신이 말하는 것에 유의 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설교자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자주 수행하며 본문에 없거나 다른 부분에서 빌려온 것들을 본문에 강요하지만, 모든 것에서 무분별하게 인용한다”(I. xxxv. 32).

<sup>25</sup> Van Mastricht, DOCM, 1329: “Solide et evidentes, apta nata qua nolentes convincant.” 예배모범은 이렇게 언급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52: “논증이나 논거는 확실하고 견고하게 한다.”

감정은 진리에 대한 사랑과 오류에 대한 경멸이다.<sup>26</sup>

9항에서는 교리 논증에 있어서의 이중적인 적용을 말하는데, 그 하나는 교의적 적용으로써 진리의 수립이며, 다른 하나는 실천적 적용이다. 교의적 적용은 진리의 수립과 오류에 대한 반박으로 나누어진다. 9항에서는 진리 수립의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고 있다. 요약하자면, (i) 진리 수립을 위한 기술은 분명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적용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ii) 진리는 신속하게 확증되어야 하고, 확증의 유효성은 견고하고 분명해야 한다.<sup>27</sup>

10항에서는 오류를 반박하기 위한 논박에 대해서 언급한다. 논박에 필요 한 세 가지 요소는 (i) 타당한 쟁점의 수립, (ii) 성경, 다양한 근거, 전통적인 합의에 의해 세워지는 건설적인 논리, (iii) 반대자들의 저항을 둔화시키기 위한 해체적인 논리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하기 위한 범칙들은 다음과 같다. (i) 필요 없는 논박은 피한다. (ii) 교회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논점이 있을 경우, 회중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다루어야 한다. (iii) “케케묵은 논쟁을 다시 꼬집어 내지 말고, 잘 알려지지 않은 논쟁을 확장시키거나 반박하여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sup>28</sup> (iv)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반박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v) “논박 중에 과도하게 애를 써서 경건의 실천이 지체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sup>29</sup> (vi) 진리를 위한

26 Van Mastricht, DOCM, 1328–9.

27 Van Mastricht, DOCM, 1330.

28 Van Mastricht, DOCM, 1330: “Sepulta non refodiuntor, nec ignotae panduntor, ne refellendo doceantur.” 마스트리흐트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지 는 않다. 그러나 에임스의 글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임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2–253: “모든 진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칠 수 있지만 모든 오류는 항상 논박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매몰된 이단들은 논박하기 위해 이를 다시 파헤칠 필요가 없고, 사악한 신성모독의 말도 굳이 반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엄격하게 선언되고 설명되고 논박된다면, 이는 오히려 고통을 주고 해를 준다”(I. xxxv. 40). 예배 모범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53: “거짓 교리를 논박할 때는 케케묵은 이단론을 제기하지 말아야 하고, 필요 없이 불경한 의견도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29 Van Mastricht, DOCM, 1331: “Non simus nimium operosi in hoc negotio, ne praxis suspendatur aut excludatur.” 에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투쟁과 오류에 대한 반박 중에도 영원한 구원과 경건을 촉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sup>30</sup>

#### 4) 실천적 적용(11-14항)

실천적 적용은 DOCM 내의 정교화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마스트리흐트가 설교에서 적용이 얼마나 세심하고 중요한 작업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마스트리흐트는 위안, 훈계, 성찰, 권면을 위한 적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11항에서는 위안적 적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마스트리흐트는 적용에서 위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다른 부분의 적용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31</sup> 둘째, 위안이 다른 적용들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별한 위안이 필요한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 소수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위안적인 적용은 불경한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한다.<sup>32</sup> 여기에서 마스트리흐트는 일종의 구별적 적용(discriminatory application)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적용의 대상을 회중 전체로 일괄시키지 않고, 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류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안적인 적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 해당되는 불행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ii) 이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논증으로 위안을 주고, (iii) 마지막으로 이런 위안적인 논증에 반대되는 논지들을 제거함으로써 위안을 강화시킨다.<sup>33</sup> 위안에서 지배적인 감정으로써, 설교자는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사랑

정수, 252: “… 진리를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설명하는 데 집착하여, 종교와 축복이 근거한 적용과 실천을 소홀히 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한 설교자들은 거의 혹은 전혀 양심에 덕을 함양할 수 없다”(I. xxxv. 30).

<sup>30</sup> Van Mastricht, DOCM, 1330-1.

<sup>31</sup> Van Mastricht, DOCM, 1331.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위안이 주가 되어야 할 경우에는 위안적 적용을 맨 나중에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sup>32</sup> Van Mastricht, DOCM, 1331.

과 그 고통에 대한 슬픔 혹은 궁徊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위안적인 적용의 결과로써 회중에게서 일어나게 될 감정은 소망과 인내이다.<sup>34</sup>

12항에서는 훈계적 적용을 다룬다. 훈계적 적용은 악행을 책망하고 악행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목적을 가지는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추구한다. 첫째, 악행은 분명하게 상술하여 책망한다. 둘째, 악행에 대한 신적인 위협을 가하여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셋째, 악행의 원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악행을 제거하거나 개선시키도록 이끈다. 회중이 훈계적 적용을 받은 결과로써 가지게 될 감정은 악행에 대한 부끄러움, 벌에 대한 두려움, 악행에 대한 증오와 혐오감이다.<sup>35</sup>

13항에서는 성찰적 적용을 취급한다. 성찰적 적용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성찰적 노력을 향하여 양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논증이다. 둘째, 선행 혹은 악행의 결과로써 드러나는 성경적인 표지들인데, 이런 것들은 견고하고, 보편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셋째는 점검의 목적으로써 (i)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고, (ii)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성찰적 적용에 있어서 일어나야 할 감정들은 다음과 같다. (i) 외적 변화에서 주어지는 기만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이것은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ii)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써 이것들은 영적 건강의 상태를 알려준다. (iii) 삶 가운데 새로운 순종을 위한 담대함으로써, 이것은 내면이 선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sup>36</sup>

14항은 권면적인 적용을 언급한다. 이것은 네 가지 측면에서 전개된다.

33 Van Mastricht, DOCM, 1331. 위안적 적용에 대한 에임스의 설명은 이와 유사하다.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3: “위로에 있어서는 설교자는 유익들을 제시함으로써 신자의 양심을 위안하고 또 자신이 그 유익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다. 또 경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와 반대되는 생각들은 축출되고 논박된다”(I. xxxv. 49).

34 Van Mastricht, DOCM, 1331.

35 Van Mastricht, DOCM, 1332.

36 Van Mastricht, DOCM, 1333.

첫째, 권장되는 의무로써의 덕이나 선행을 개별적으로 서술한다. 둘째, “만일 촉구되는 것이 이른바 덕이라면, 의무를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들을 제시한다.”<sup>37</sup> 넷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유형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한 삶의 의무를 권면할 경우, 수단들로써 성경 읽기, 말씀 듣기, 기도하는 삶을 언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 유형은 부지런함, 꾸준함과 같은 것이 제시될 수 있다. 권면적인 적용에 있어서 발휘되어야 할 주요한 감정들은 덕이나 선행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다.<sup>38</sup>

### (3) 전달과 결론(15-18항)

15항은 주의사항 세 가지를 전한다. 첫째, 설교의 모든 부분들이 본문의 내용과 부합성을 항상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각 부분들과 요소들은 설교 본문에 따라 선별해야 한다. 둘째, 회중의 상태와 시간을 고려하여, 이를 부분들을 사려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 셋째, “설교의 각 부분 안에서 모든 요소들을 다 수용할 수도 없다. 만일 모든 요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더라도, 항상 그렇게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되는 요소들을 동일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제시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요소들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회중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sup>39</sup> 마스트리흐트는 설교를 구성하는 부분들과 세부 요

<sup>37</sup> Van Mastricht, DOCM, 1334: “Media quibus officium obtineri possit, si nim. virtus sit quod suadetur.” 에임스는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3: “덕목에 대한 권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덕목을 우리 안에 생성시키게 하는 방법들을 보여주는 것이 유익하다....”(I. xxxv. 51).

<sup>38</sup> Van Mastricht, DOCM, 1334.

<sup>39</sup> Van Mastricht, DOCM, 1335: “Nec in singulis partibus omnia admitti possunt ingredientia, nec si possent, debent semper. Nec qua admittuntur eodem conatu et prolixitate admitti debent, quod unum alio quandoque utilius accidat Auditorio.” 에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3: “본문으로부터 도출된 모든 교리들이 제시되고 모든 효용들이 제안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소, 시간, 사람의 상황들에 의해 가장 긴요하다고 제시되는 것들, 특별히 현신의 영을 고무시키고 강화시키는 것들이 선별되어야 한다”(I. xxxv. 31).

소들을 동일한 분량으로 회일적인 방식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설교의 전체 내용과 구성, 본문과의 관련성, 회중에 대한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실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16항은 긴 본문을 취급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형식상 차이는 없다. 일반적으로, 본문 주해를 시행한 다음, 본문 전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하나의 교리적 명제를 세운 후에, 그 교리의 확증과 적용(위로, 훈계, 성찰, 권면)을 해 나가는 것이다(방법-I).<sup>40</sup> 다른 방식은, 본문의 분석과 주해를 간략하게 한 다음, 주된 교리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교리들로부터 회중에게 가장 유용한 것을 선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방법-II).<sup>41</sup> 그러므로 마스트리흐트는 짧은 본문이든 긴 본문이든 본문 주해, 교리 논증, 적용이라는 주된 구성을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7항은 준비한 설교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세 가지 차원에서 다룬다. 첫째, 어법에 있어서 (i) 기교적인 용어들과 기이한 표현들은 순화되어야 한다. (ii) “과장하거나, 젠체하거나, 긴 문장을 쓰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통속적이거나 천한 표현을 사용하여 설교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sup>42</sup> (iii) 분명하고 명료해야 한다. 둘째, 음성에 있어서 (i) “낭랑하고 명료하여 모든 회중을 만족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느리거나 지나치게 빠르지 않아야 한다.”<sup>43</sup> (ii) 상황과 감정에 잘 어울려야 한다.

<sup>40</sup> Van Mastricht, DOCM, 1335–6. 마스트리흐트는 이 방법을 자신이 주로 추구해온 설교 방법이라고 언급한다.

<sup>41</sup> Van Mastricht, DOCM, 1336. ‘방법-I’ 혹은 ‘방법-II’는 마스트리흐트가 제안하는 두 가지 설교 방식을 구분에 편리하도록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sup>42</sup> Van Mastricht, DOCM, 1336: “Non sit tumidus, aulicus, sesquipedalis; aut etiam nimium vulgaris et abjectus, ut sordeat...” 예배모범은 이렇게 가르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55: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 인간을 타락시켜 목사와 목회를 경멸하게 만드는 행동이나 목소리, 표현들을 삼가라.”

<sup>43</sup> Van Mastricht, DOCM, 1336: “Sonora, distincta: toti auditorio satisfaciendo sufficiens; nec etiam nimium tarda, aut nimium velox.” 에임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5: “발음은 자연스럽고 친숙하며 분명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설교에서 무례한 또 한가지 목소리는 성급하고 빠른

셋째, 몸동작에 있어서는 (i)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차분하지 않아야 한다.”<sup>44</sup> (ii) “연극배우처럼 과장된 몸동작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과장된 몸동작은 경건한 감정보다는 오히려 웃음을 일으키기에 적합하다.”<sup>45</sup> (iii) 몸동작은 선포되는 내용과 회중의 감정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sup>46</sup>

18항은 DOCM의 마지막 부분으로써 마스트리흐트는 지금까지 제시한 설교 방식이 최상인 이유들을 열거함으로써 마무리 한다. 이 설교법은 설교자에게 배치에 있어서 질서를 잡아주고, 회중의 이해와 기억을 돋고, 설교 될 내용과 설교자에 관계없이 그 내용을 회상할 수 있게 해 주고, 설교문 작성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sup>47</sup>

## 2. 에드워즈의 설교 양식과 DOCM 의 영향

여기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에드워즈의 설교 선집을 참고하고<sup>48</sup> 기존에

---

목소리로, 청중의 귀가 너무도 빠른 말에 압도당해 주제를 분명히 이해할 수도 없는 경우이다”(I. xxxv. 61, 63).

**44** Van Mastricht, DOCM, 1336: “Nec nimium affectuosus, nec nimium placidos.”

**45** Van Mastricht, DOCM, 1336: “Nec histrionicos, risum potius, quam pios affectus movere idoneos.” 에임스는 이렇게 가르친다.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3: “의회에서나 법원, 광장에서 조소거리가 되는 언어, 음성, 제스처는 설교에서는 더욱 회피되어야 한다”(I. xviii. 64).

**46** Van Mastricht, DOCM, 1336.

**47** Van Mastricht, DOCM, 1336.

**48**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백금산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여기에는 에드워즈 설교의 모든 영역을 대표하는 14편의 설교가 예일대 에드워즈 결정판 전집 위원회에 의하여 선정되어 실렸다. 이는 곧 어느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설교만을 모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기에 작성된 에드워즈의 설교의 전형을 보여주면서도 신학적, 역사적 가치를 가진 설교들을 선별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시되는 에드워즈의 설교는 필자가 DOCM과의 관련성 주장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뽑아 둔 것이 아님을 또한 밝혀 둔다. 이 선집의 편집자는 윌슨 김나흐(Wilson H. Kimnach), 케네스 민케마(Kenneth P. Minkema), 더글拉斯 스위니(Douglas A. Sweeney)이다. 설교 제목은 다음과 같다. 거룩의 길(사 35:8, 1722), 신앙의 즐거움(잠 24:13-14, 1723), 신학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히 5:12, 1739),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신 32:35, 1741), 구속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고전 1:29-31, 1730), 회심의 실재(요 3:10-11, 1740), 성경의 빛(벧후 1:19, 1751),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막 16:15-16, 1751), 신적이며 영적인 빛(마 16:17, 1734).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욥 19:25, 1740),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계 5:5-6, 1738), 불우이웃돕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다(행 10:4-6,

국내에서 발표된 에드워즈의 설교 분석 논문들을 활용하여 에드워즈의 설교 양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DOCM이 에드워즈의 설교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 (1) 설교의 구조

“본문(Text)-교리(Doctrine)-적용(Application) 구조는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의 결정적 형식이다. 에드워즈는 때로 외적인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많은 교리적 진술과 다양한 적용을 삽입함으로써 기본 구조를 혼합적으로 사용하지만 결코 기본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sup>49</sup> 에드워즈 설교 선집에 소개된 14편 중에는 에드워즈의 설교 방식의 철칙을 깨트리는 한편의 설교가 실려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1751년에 인디언들에게 설교한 것이다. 여기에는 본문 해설이나 교리와 같은 별도의 논증이 없고,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현재 인디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제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발견할 것을 촉구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설교의 분량도 보통의 목회 설교보다는 훨씬 짧은데, 통상적인 설교방식을 소화할 수 없는, 복음에 전혀 무지한 인디언이라는 특수한 선교 대상을 배려하여 보다 간명하고 쉬운 설교를 하려 했던 에드워즈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난다.<sup>50</sup> 이와 같은 특수한 예를 제외하면, 에드워즈는 본문을 주제하고, 그로부터 하나의 교리적 명제를 세운 후에 이에 대한 논증을 펼쳐나가고, 그런 다음 회중의 상황에 맞는 적용을 함으로써 설교를 마친다. 이런 방식은 DOCM에서 설명된 ‘방법-I’과 동일하다.<sup>51</sup>

1741), 심판 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고후 1:14, 1750), 전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고전 13:8-10, 1738). 팔호 안은 본문과 설교 연도임. 본고에서 에드워즈의 설교 구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위의 자료에 한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sup>49</sup> 월슨 킴나흐 외 2인, “편집자 서론”,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5.

<sup>50</sup> 이 설교는 에드워즈가 스톡브리지(Stockbridge) 선교사 시절에 했던 것으로, 이 설교 선집에 인쇄물로는 최초로 선보인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41, 192-98.

<sup>51</sup> ‘방법-I’과 ‘방법-II’에 대해서는 본고의 ‘1-3’ 16항 부분 참조.

DOCM에서 말하는 ‘방법-II’는 하나의 교리적 명제를 세우지는 않고, 본문 주해 이후에 이로부터 중요한 교리 몇 가지를 뽑아내고, 이것들로부터 마지막에 적용을 하는 식인데, 에드워즈에게서는 이러한 ‘방법-II’의 설교도 발견된다. 다만 ‘방법-II’는 일반적 목회 설교 보다는, 목사 임직식 설교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설교에서 주로 발견된다. 부흥과개혁사에서 에드워즈의 목사 임직식 설교 네 편을 번역하여 『목사, 성도들의 영혼지킴이』라는 책으로 발간하였는데, 여기에 기록된 네 편의 설교들은 모두 ‘방법-II’를 따르고 있다.<sup>52</sup> 즉, 본문으로부터 교리에 해당하는 대지들을 몇 가지 끄집어내어 설명하거나 논증한 다음, 회중과 목사들에게 각각 권면적 적용을 하는 식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방법-I’과 ‘방법-II’는 모두 본문-교리-적용의 3단 구조를 가진다.

## (2) 도입

에드워즈의 설교문을 보면 도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본문 해석과 연결지어 놓았다. 마스트리흐트는 도입이 본문과의 관련성을 가지도록 주문하는데, 에드워즈는 마스트리흐트가 주문하는 도입의 형식을 비슷하게 사용한다. 마스트리흐트는 도입을 본문과의 일관성 가운데 세우는 일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i) 선택한 본문의 앞부분 혹은 뒷부분에 맞추어 문맥안에서 명제를 진술하고, 그 명제의 타당성을 성경 구절로 지지하고 명백한 추론으로 증명한다. (ii) 이미 밝혀진, 문맥의 연결을 드러내는 추정을 진술된 명제로부터 세운다.<sup>53</sup> 비록 에드워즈의 설교문에는 도입과 본문 해석 사이의 일정한 구분이 발견되지 않고, 둥뚱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본문을 앞뒤의 문맥 또는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고려하여 명제를 세우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발견된다.<sup>54</sup>

<sup>52</sup> 다음 책을 보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성도들의 영혼지킴이』,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sup>53</sup> Van Mastricht, DOCM, 1326-7.

<sup>54</sup>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설교 전체 참조.

### (3) 본문 선택과 주해

본문 선택을 살펴보면 에드워즈는 긴 본문을 선택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한 구절에서 세 구절 정도를 설교 본문으로 제시한다.<sup>55</sup> 이것은 긴 본문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마스트리흐트의 입장과 일치한다. “진실로 본문이 길면 줄거리를 해설하기 위해 시간을 빼앗긴다.”<sup>56</sup> 또한 에드워즈는 DOCM이 제안하고 있는 본문 주해의 원리들을 자신의 본문 주해에 충실히 활용하고 있다. 즉, 본문은 짧게 선택했지만 주해 과정에서 앞뒤 문맥을 고려하고 있으며, 회중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위주로 요약하거나, 본문 그 자체로 충분히 이해되는 것을 애써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의 본문 주해는 간략하지만 설득력을 가진 논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DOCM의 본문 주해 방법을 일정부분 사용한 결과로써 파악된다. “본문이 말하는 충분히 분명하고 명확한 것들을 설교자 자신이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가? 이는 논증을 위한 시간을 흄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문을 해설하기 보다는 오히려 모호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 성경을 영구적인 모호함으로 정죄해 버리게 된다.”<sup>57</sup> 예를 들어, ‘회심의 실재’는 요한복음 3:10-11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본문 해설은 본문

<sup>55</sup> 위의 각주에 제시된 설교 본문들을 참고하라. 이처럼 탁월한 설교자들 중에는 짧은 본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예로써, 에드워즈와 동시대를 살았던 조지 훗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의 경우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에서 제공하는 59편의 설교 중에 한 구절을 본문으로 잡은 설교가 47편, 세 구절 이상을 본문으로 잡은 설교는 1편에 불과하다. <http://www.ccel.org/cCEL/whitefield/sermons.toc.html> (최종 접속일: 2016. 11. 22). 훗필드를 흡모했던 찰스 스펄전(Charles Spurgeon, 1834-1892)의 경우도 비슷하다. 3000편이 넘는 출간된 설교 중에서 한 구절 내지 두 구절을 본문으로 잡은 설교가 가장 많으며, 세 구절 이상을 본문으로 잡은 설교는 간간이 발견될 뿐이다. <http://www.spurgeongems.org/sermons.htm> (최종 접속일: 2016. 11. 22). scripture index를 참고하라.

<sup>56</sup> Van Mastricht, DOCM, 1326: “ne prolixiori verborum explicatione, argumento tempus praripiatur.”

<sup>57</sup> Van Mastricht, DOCM, 1328: “Ut per satis clara et perspicua, non nitatur explicare Ecclesiastes, eo, non tantum argumento tempus surrepturus; sed etiam textum declarando magis obscuraturus, quin Scripturam perpetua obscuritatis damnaturus.”

의 논점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마치며 이는 전체 설교의 5% 미만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sup>58</sup> 그러므로 교리와 적용을 강물에 비유할 경우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성경 본문은 수원(水原)과 같은 위치에 있다.

#### (4) 교리 논증과 적용의 기법

에드워즈의 설교에서 교리논증은 DOCM에서 추구하는 핵심과 일치한다. “교리 논증은 반대하려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분명하고, 적합하게 도안되어야 한다.”<sup>59</sup> 대체적으로 그의 교리 논증은 회중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논거들을 제시하여 다른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탄탄한 체계를 가짐으로 설교 전체의 무게 중심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에드워즈는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다. 이와 관련된 가장 출중한 예는 두말할 나위 없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다. 이 설교를 번역한 백금산 목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에드워즈의 이 설교는 설교 역사상 회심 하지 않은 죄인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운명과 위험을 가장 논리적이고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설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합한 탁월한 은유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에드워즈는 … 무려 20여가지의 다양한 은유를 사용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죄인의 처참하고 위험한 상황을 눈에 보이듯이 선명하게 묘사합니다.”<sup>60</sup> 이 설교에서 적용이 차지하는 분량은 전체 설교의 50%를 초과한다.<sup>61</sup>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는 성찰을 위한 적용에서

<sup>58</sup>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67-191. 이것은 예외적으로 본문 주제의 간결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설교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본문 주제는 설교의 균형을 저해하고 본문 자체의 관점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sup>59</sup> Van Mastricht, DOCM, 1329: “Solide et evidentes, apta nata qua nolentes convincant.”

<sup>60</sup> 백금산,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회심설교”, 조나단 에드워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백금산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10.

<sup>61</sup>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21-43.

자기 점검 항목을 15개의 질문식 문장으로 쉼 없이 쏟아낸다.<sup>62</sup>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는 위안적인 적용에서 32개의 연결된 질문식 문장으로 위안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펼친다.<sup>63</sup> 진실로 에드워즈의 설교를 읽어보면 회중을 설득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을 적용에 쏟아부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이처럼 적용 부분은 에드워즈의 설교에 있어서 백미(白眉)다. 이것은 DOCM에서 마스트리흐트가 적용을 ‘설교의 영혼’<sup>64</sup>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상통한다. 또한 에드워즈는 회중의 상황에 따라 위안, 성찰, 권면, 훈계를 적절한 분량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라는 DOCM의 권고를 충실히 따른다.<sup>65</sup> 그러므로 에드워즈의 설교에서 적용은 전체 설교에서 30~50% 이상까지 적절한 분량을 차지하면서, 적용의 네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sup>66</sup>

뿐만 아니라, 적용을 받는 회중의 대상을 세심하게 구분하는 ‘구별적 적용’의 기법을 대부분의 설교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sup>67</sup> 구별적 적용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설교 중 하나는 ‘심판 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sup>68</sup>이다. “첫째, 우리 가운데 있는 경건한 신앙고백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없이, 은혜를 받지도 못한 채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각성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내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양무리 가운데 어린 양, 제가 오랫동안 돌보아 왔던 어린이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중의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이러한 기법은 횃필드와 스펠전에

62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208-9.

63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296-8.

64 Van Mastricht, DOCM, 1329.

65 Van Mastricht, DOCM, 1329.

66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4편 설교 전체 참조. 박현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분석을 통한 적용 패러다임 연구”, 『개혁논총』, 25 (2013), 283-321.

67 본고의 ‘1-2)-(4) 실천적 적용’ 부분 참조. 마스트리흐트는 구별적 적용을 특별히 위안적 적용에서 언급하고 있다. 구별적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조엘 비키, 『칼빈주의』, 신호섭 역 (서울: 지평서원, 2010), 440-5.

68 이 설교는 성찬 참여 자격 조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 끝에 에드워즈가 해임되면서 행한 고별 설교로 유명하다.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39-40.

계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것인데,<sup>69</sup> 이것은 청교도 설교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청교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는 설교의 적용 대상을 7가지 유형으로 소개한다. (i) 불신자이며, 성경에 무지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ii)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만 무지한 사람들. (iii) 지식은 있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iv) 이미 겸손해진 사람들. (v)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vi) 믿음에서 실족한 사람들. (vii)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는 교회.<sup>70</sup> 조엘 비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청교도 전도는 진리를 분별하여 체험에 적용시키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진리를 분별하는 설교는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규정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를 선포하며, 반면에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saviour)와 주(Lord)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죄 사함과 영생을 제시하는 것이다.”<sup>71</sup>

### (5) 전달과 감정

설교의 전달에 있어서 에드워즈가 어떠했는지는 다소간 의견이 분분하다. 에드워즈는 작성된 원고를 들고 설교단에서 찬찬히 읽어 나가는 원고

<sup>69</sup> 횃필드의 설교는 DOCM 의 ‘방법-II’와 구조가 유사하다. 먼저 본문 해설이 나오고 본문 해설 말미에, 이어서 전개할 내용을 2-5가지 내외의 대지도 설정하여 소개한 다음, 이것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는 식이다. 통상 마지막 대지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본문-교리(대지도)-대지도의 적용과 같은 유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횃필드와 스펠전의 설교에서는 비화심자를 위한 권면의 적용이 자주 등장한다. 15편의 횃필드의 설교가 담긴 다음의 한글 자료를 참고하라. 조지 횃필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서문강 역 (서울: 지평서원, 2004). 스펠전의 설교에 있어서 본문 해설 이후 대지를 설정하는 것은 횃필드와 유사하지만, 대지 안에는 교리와 적용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지를 설명하면서, 특유한 대화적 기법을 사용하여 회중과 소통하는 식으로 교리 논증과 적용을 함께 다루는 것은 횃필드나 에드워즈와는 다른 점이다. 스펠전의 영문 설교들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보라. <http://www.spurgeongems.org/sermons.htm> (최종 접속일: 2016. 11. 22).

<sup>70</sup> 윌리엄 퍼킨스,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채천석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91-98.

<sup>71</sup> 조엘 비키, 『청교도 전도』, 김홍만 역 (서울: 청교도신앙사, 2006), 53.

중심 설교자로 알려져 있지만, 또한 원고에 점차 치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견해들도 만만치 않다.<sup>72</sup> “그의 원고와 동시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에드워즈는 열정적인 설교자였음이 분명하다. … 에드워즈의 설교에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청중들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고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sup>73</sup> 언제나 대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에드워즈가 당대의 헛필드와 같은 큰 목소리와 뛰어난 응변력과 화술을 갖추지는 않았다는 점이다.<sup>74</sup> 그러나 에드워즈가 설교의 전달에 있어서 드러낸 무기교가 무감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의 설교문 자체에서 명확하게 발견된다고 하겠다.

#### (6) DOCM이 영향을 미친 부분들에 대한 요약

국내에서는 에드워즈의 설교에 대한 학위논문들과 단편 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에드워즈의 설교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DOCM을 언급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sup>75</sup>

72 조한덕,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설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대학교대학원, 2011), 128-131.

73 더글라스 스위니,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씀사역』, 김철규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1), 88-89.

74 박완철,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와 그의 ‘마음의 감각’ 신학”, 「신학정론」, 1 (2006), 241.

75 조사한 학위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강승규,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설교 신학과 특징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2008). 조한덕,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11). 박규성, “미국의 영적 대각성기의 설교에 대한 연구: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헛필드의 설교사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3). 박형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18세기 미국 신앙부흥운동”,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황철민,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과 설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한동현, “요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설교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5). 남래우,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에 나타난 지성과 감성의 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2013). 김성국,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도자 Jonathan Edwards의 설교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4). 김성곤,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2010). ProQuest® 검색 결과 해외 문헌 중에도 DOCM과 에드워즈의 설교간의 관련성을 다룬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그렇다면 본고는 DOCM과 에드워즈의 설교간의 관련성을 다른 최초의 논문이 될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드워즈의 설교는 DOCM의 ‘방법-I’을 주로 사용하였고, 목사 임직 설교와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설교에서는 ‘방법-II’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sup>76</sup> 이는 모두 ‘본문-교리-적용’이라는 3단 구조를 가진다. 에드워즈의 설교에 마스트리흐트의 DOCM이 영향을 미친 뚜렷한 흔적은 회중을 고려하는 설교 주제 및 본문의 선택에 있어서(유효하고 짧은 본문 선택), 설교의 세부 구조에 있어서(‘방법-I’ 및 ‘방법-II’의 사용), 교리 논증의 기법에 있어서(견고하고, 분명하고, 적합한 도안), 탄력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적용의 기법에 있어서(구별적 적용과 상황에 맞는 적용 요소들의 분배 등)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앞에서 조사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DOCM과 에드워즈 설교의 골격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뚜렷하게 포착된다.<sup>77</sup>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DOCM이 마스트리흐트의 독창적인 저술이라기 보다는 그 자신이 밝힌대로 당대에 ‘최상의 설교법’으로 널리 인정되던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요약한 것이라는 점이다.

### III. 결론

지금까지 DOCM의 전반적인 내용을 항별로 요약하여 소개하고, 에드워즈의 설교 방식을 조사한 후 DOCM이 에드워즈의 설교 ‘구성’에 영향을

<sup>76</sup> ‘방법-I’과 ‘방법-II’는 본고 ‘1-3’의 16항 부분 참조.

<sup>77</sup>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TEDS)의 역사신학 교수이며, Jonathan Edwards Center 소장인 더글라스 스위니 박사는 필자에게 에드워즈는 확실히 마스트리흐트의 설교법을 따랐으며, 또한 청교도 설교의 오랜 전통이었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Westminster Directory, 1644)도 참고했을 것이라는 조언을 덧붙여 주었다. “...All of this is to say that Edwards surely followed Mastricht, but he also followed the Westminster Directory and what by his day was a long tradition of Puritan preaching according to this method.”(2014. 7. 12. 전자우편). 에드워즈의 설교와 관련한 여러 번의 논의에서 자상함을 보여준 스위니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함. 이와 관련하여 각주 78번을 또한 보라.

끼친 증거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스트리흐트의 교의서 *TPT*를 성경 다음의 최고의 책으로 추천했던 에드워즈가, *TPT*에 부록으로 소개된 *DOCM*을 자신의 설교 구성의 주요 참고 자료들 중 하나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밝혀졌다.

종합해 볼 때, 마스트리흐트와 당대의 개혁파 정통주의 설교자들은 본문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졌고, 교리 혹은 대지들은 본문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연역하였고, 이러한 교리들은 다른 성경 구절과 성경의 추론으로부터 논증을 통하여 설명하고 설득했으며, 확증된 교리들은 회중의 각각의 상황에 맞게 유효하고 심령에 와 부딪히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OCM*을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에 언급된 내용과 대조해 본 결과 유사한 언급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마스트리흐트의 *DOCM*이 당대 개혁주의 설교법으로서 독특한 것이 아니라 표준적 지침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sup>78</sup> 또한 마스트리흐트는 설교의

78 필자가 *DOCM*을 입수하기 쉬운 당대의 두 가지 개혁주의 문헌으로써 『신학의 정수』 및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비교해 본 것은, *DOCM*이 마스트리흐트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만의 고유한 설교법이 아니라 당대의 개혁주의 설교자들이 사용하던 표준적인 설교법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신학의 정수』는 마스트리흐트 자신이 언급한 문헌이며(*DOCM*, 1325),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청교도 설교자들이 통상적으로 참고하는 문헌이었다.) 그리고 마스트리흐트의 말은 이 두 가지 문헌과 대조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비교 문헌들은 설교의 구조와 형식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다루는 설교 문헌이 아니라, 설교에서 요구되는 주요 지침들을 주는 정도의 몇 페이지 되지 않는 분량이 포함된 교의학 문헌 및 예배학 문헌이다. 그러므로 에드워즈의 설교의 형태가 *DOCM*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비교 문헌 중 어느 하나에 입각하여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DOCM*이 제시하는 구조와 방식을 따르되, 이 두 가지 문헌들이 주는 주의사항들도 교차적으로 참고했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마스트리흐트 자신이 퍼킨스의 영향을 언급한 것처럼, 에드워즈도 잘 알려진 퍼킨스의 『설교의 기술』을 자신의 설교 형성에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설교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세부 사항에 있어서 에드워즈의 설교는 *DOCM*과 더 친밀한 관계성을 드러낸다. (지면상 세부 사항을 다 밝히지는 못하나, 퍼킨스의 『설교의 기술』은 설교의 조직과 구성 보다는 상대적으로 성경 해석의 원리와 예시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필자는 *DOCM* 전문(全文)을 라틴어로부터 번역하여 출간할 계획이므로, 이후 이 책 전체를 숙독하고 에드워즈의 설교를 읽는 사람들은 *DOCM*과 에드워즈의 설교간의 관련성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할 것이라 믿는다. 아무튼 당연히 *DOCM* 만이 에드워즈의 설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나, *TPT*에 대한 그의 극찬으로 볼 때 *DOCM*

각 부분들마다 설교자 또는 회중에게 일어나야할 감정들을 간략하게 제시 함으로써, 당대 개혁파 정통주의 설교자들이 무미건조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감화력 있는 ‘말씀의 전달자’임을 엿보게 한다. 에드워즈는 이러한 유산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설교자였으며, DOCM에서 소개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충실히 응용했다고 볼 수 있다.<sup>79</sup>

이제 오늘날 조국 교회에 DOCM이 던지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설교의 핵심은 원고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다. 짧은 본문인가 긴 본문인가의 문제도 아니다. 연역적인가 귀납적인가의 문제도 아니다. 예화를 사용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도 아니다. 화술이 탁월한가 아닌가의 문제도 아니다. 본문을 순차적으로 설교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도 아니다. 적절한 몸동작이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도 아니다. 웃음거리를 제공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도 아니다. 핵심의 첫째는 성경을 설교의 근원으로 두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본문 주제의 문제). 둘째는 진리의 확고한 전달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교리 논증의 문제). 셋째는 회중의 변화(회심과 성화)를 추구하려는 세심함과 집요함과 간절함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적용의 문제). 이것이 DOCM의 요점이다. 17세기의 마스트리흐트가 ‘최상의 설교법’이라고 추켜세웠던 이 설교 방법은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충실히 이어받아 실천하면서 1차 대각성 운동의 도구가 되었고, 동시대의 횃필드와 19세기의 스펠전이 비슷한 방식을 추구하면서 부흥에 쓰임받았고, 그리고 20세기의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 1899-1981)<sup>80</sup>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명맥이 이어져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배들을 통해 우리 눈에 확고하게 드러난 진실이 있다.

---

을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79** DOCM 의 기본 골격과 세부 사항들은 Cicero를 비롯한 고대 철학자들의 고전 수사학이 제시하는 연설의 구조와 지침들 중 일부와 일맥상통하는데, 이는 개혁파 스콜라주의 설교자들과 에드워즈를 비롯한 후대의 설교자들이 고전 수사학에 식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생략한다.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키케로, 『수사학』, 안재원 편역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80**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0), 101-24.

교회의 쇠락은 설교의 쇠락이 원인이며, 교회의 참된 부흥은 언제나 설교의 부흥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이제 치러야 할 값은 무엇인가? DOCM의 사용은 부단한 연구(본문 주해와 교리의 논증을 위해서)와 기도(회중의 상황에 들어맞는 구체적 적용을 위해서)를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연구와 기도)를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언제든지 DOCM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환영받지 못할 이런 유형의 설교 방법이 실제적으로는 탁월한 옛 설교자들에 의해 최상의 것으로 추켜세워졌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말이다. “적용적 설교는 종종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설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해롯왕은 그 설교 듣기를 즐거워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의 설교를 특별하게 적용했을 때, 세례 요한은 생명을 잃어야만 했다.”<sup>81</sup>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최상의 설교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설교 후에 “이 얼마나 경이로운 설교인가!”라는 회중의 반응에 결코 기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구세주인가!”<sup>82</sup>라는 반응을 얻을 때 까지 쉬지 않는 설교자들이 이 시대 안에서 무수히 일어난다면, 조국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또 다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실로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역의 목표로 삼으라. 다른 이들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유행을 따르더라도 놔두라.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교해야 할 것이다(코튼 마더).<sup>83</sup>

81 조엘 비키, 『칼빈주의』, 신호섭 역 (서울: 지평서원, 2010), 439.

82 이러한 반응은 스펄전의 설교를 들은 미국 목사들의 반응이었다. 다음을 참고하라. 아놀드 멜리모어, 『찰스 스펄전』, 김동진 역 (서울: 두란노, 1993), 280.

83 Cotton Mather, *Manuductio ad ministerium: Directions for a Candidate to the Ministry* (New York: AMS Press, 1978), 16. 다음 자료에서 재인용. 조엘 비키, 『칼빈주의』, 433.

### [Abstract]

## A Study of “De Optima Concionandi Methodo” written by Petrus van Mastricht : Focused on the Influence to the Sermons of Jonathan Edwards

Jeong Hwan Lee (Sa-Chun Presbyterian Church)

This article overviews a treatise of sermons entitled “De Optima Concionandi Methodo” which is contained in *Theoretico-Practica Theologia*, the magnum opus of Petrus van Mastricht. On the basis of this review, the sermons of Jonathan Edwards were analyzed. Thereby the correlation between DOCM and the sermons of Edwards was elucidated. In short, it was found that DOCM is a standard reformed method for preaching, and Edwards was a faithful and standard reformed preacher using that method. Basically, Edwards used the format of text exegesis-doctrinal argument-discriminatory application, the fundamental pattern of the major reformed preachers in the 17th century. Furthermore, in his ordinary sermons, Edwards reflected the major points directed in DOCM of Mastricht. Specifically, Edwards, in his sermons, used discriminatory applications in order to induce spiritual changes for his congregation. But, nowadays the majority of the contemporary preachers

have lost discriminatory applications in their routine preaching. Hence, if we start to study the old way of preaching and use again such method, we may anticipate a genuine revival which comes with the Word of God as we see in the history of preaching.

Key Words: De Optima Concionandi Methodo, *Theoretico-Practica Theologia*, Van Mastricht, Jonathan Edwards, Discriminatory Application

### [참고문헌]

- Van Mastricht, Petrus. "De Optima Concionandi Methodo." in *Theoretico-Practica Theologia*. Utrecht: W. van de Water, 1724: 1325-36.
- \_\_\_\_\_. *The Best Method of Preaching*. trans. Todd M. Rester. Grand Rapids,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3.
- \_\_\_\_\_. *A Treatise on Regeneration*. Brandon Withrow. ed. New Haven, CT: Soli Deo Gloria, 2002.
- 강승규.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설교 신학과 특징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대학원, 2008.
- 김성곤.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2010.
- 김성국.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도자 Jonathan Edwards의 설교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4.
- 남래우.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에 나타난 지성과 감성의 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2013.
- 더글라스 스위니.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씀사역』. 김철규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1.
-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0.
- 박규성. "미국의 영적 대각성기의 설교에 대한 연구: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훗필드의 설교사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3.
- 박완철.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와 그의 '마음의 감각' 신학." 「신학정론」 1 (2006): 211-45.
- 박현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분석을 통한 적용 패러다임 연구." 「개혁논총」 25 (2013): 283-321.
- 박형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18세기 미국 신앙부흥운동." 석사학위논문.

-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 아놀드 A. 텔리모어. 『찰스 스펄전』. 김동진 역. 서울: 두란노, 1993.
-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서원모 역.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7.
- 윌리엄 퍼킨스.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채천석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백금산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 \_\_\_\_\_.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백금산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_\_\_\_\_. 『목사, 성도들의 영혼지킴이』.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 조엘 비키. 『청교도 전도』. 김홍만 역. 서울: 청교도신앙사, 2006.
- \_\_\_\_\_. 『칼빈주의』. 신호섭 역. 서울: 지평서원, 2010.
- 조지 횃필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서문강 역. 서울: 지평서원, 2004.
- 조한덕.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설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대학교대학원, 2011.
- 토마스 레쉬만 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정장복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2.
- 한동현. “요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설교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5.
- 황철민.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과 설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 <http://www.ccel.org/cCEL/whitefield/sermons.toc.html>
- <http://www.spurgeongems.org/sermons.htm>